

조선통신사를 통해 본 조·일 문화교류의 면면

— 송지원

* **지은이 | 송지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조의 음악정책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동양음악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공연문화학회, 아시아문화예술학회 부회장, 한국국악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국가전례와 음악사상사, 음악문화사, 음악사회사 분야의 연구를 통해 예와 악, 인간과 문화, 사회의 관점에서 조선시대를 읽어내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조의 음악정책』, 『장악원, 우주의 선율을 담다』, 『마음은 입을 잇고, 입은 소리를 잇고: 옛 음악인 이야기』 등의 저서와 『다산의 경학세계』, 『역주 시경강의』(전 5권) 등의 역서, 『영조대 儀禮 정비와 『國朝續五禮儀』 편찬』, 『조선시대 별에 대한 제사, 靈星祭와 老人星祭 연구』 등의 여러 논문이 있다.

** 이 연구는 2008년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머리말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는 일본의 요청에 의해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이다. 조선시대에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세종 대부터였다. 그러나 1592년(선조 25) 왜군의 침략으로 발발한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 ‘믿음으로 통한다’는 의미의 ‘통신’(通信)이라는 명칭 사용의 부당함이 제기되어 1607년(선조 40), 1617년(광해군 9), 1624년(인조 2)의 세 차례는 ‘회답 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라는 이름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 명칭에 ‘쇄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당시 일본행의 긴급한 현안이 임진왜란 당시 잡혀간 포로 쇄환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후 1636년(인조 14)부터 다시 ‘통신사’라는 이름을 회복하게 되었고 1811년(순조 11), 제12차를 마지막으로 조선통신사의 활동은 막을 내렸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4년간 이어진 조선통신사의 일본 파견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문화교류’의 다양한 면면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양국의 문화교류사적 측면에서 주목할 요소가 많다.

사전적 의미의 ‘문화교류’(cultural exchange)란 “이질문화(異質文化)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한다면, 문화교류란 현대 국제사회의 추이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므로 그 출발에 있어서는 다분히 수직 확산적 형태를 지니고 있었고, 바로 그러한 사실은 ‘문화교류’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켜 왔다. 그러나 현재 문화교류란 문화 간의 상호 이해와 관련된 제반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어, 글로벌화되어 가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 이해를 위

한 노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여기서 현대 국제사회의 인식에서 배태된 ‘문화교류’라는 용어로 조선시대 외교활동의 하나인 ‘조선통신사’에 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은 얼핏 무리가 있는 듯도 보인다. 그러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이질문화의 접촉과 전파라는 차원에서 문화교류를 파악한다면 전통시대에 ‘조선통신사’라는 집단을 통해 이루어진 문화교류에는 이 시대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설명해야 할 내용이 많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펼친 문화활동 및 그들이 일본에서 접한 문화적 경험 내에는 거시적인 측면이나 미시적인 측면에서 읽어 내야 할 다양한 문화코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¹⁾

조선통신사의 대규모 인원은 당시 대마도의 인구에 비해서도 상당한 인원에게 달하였고, 그들이 지나가는 길은 통신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선의 문화를 갈구하는 수많은 일본인들의 문화교류 현장으로 활용되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행한 각종 공식 의례(儀禮)는 조선과 일본의 문화 차이를 조정하고, 양국의 왕실 문화를 공식적으로 나눌 수 있는 현장이 되었다. 조선 왕실의 제사 양식이 일본으로 전해지고, 일본의 궁중음악인들이 조선의 통신사들 앞에서 공연한 각종 악무(樂舞), 조선의 문인이 일본에 남겨 놓은 여러 시문(詩文), 조선의 전문인들이 일본에서 공연한 마상재(馬上才) 묘기, 조선의 화가가 일본에서 그린 각종 그림들, 일본의 화가가 조선통신사를 보고 그린 그림들을 통해 조선과 일본의 다양한 문화교류 현장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교류 상황은 조선시대 통신사의 일원으로 참여한 정사(正使), 부사(副使), 서기(書記), 혹은 제술관(製述官), 역관(譯官) 등에 의한 기록으로 남아 있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생생한 현실로 느껴진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조선통신사의 활동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그 교

1) 조선통신사 연구는 1970년대에 일본 거주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신기수, 이진희, 강재언 등에 의한 조선통신사 연구 성과는 일본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 「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1979)가 제작된 이후 일본사회의 조선통신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우리나라에서의 조선통신사 연구는 일본보다 늦어 1980년대부터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연구 시작이 비교적 늦었지만 이후 문학, 역사, 외교, 정치, 미술, 음악, 복식,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최근에 그 연구성과를 결집한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學古房, 2008)가 전 13권으로 묶여져 나왔다.

류 영역은 학문 전반에 걸쳐 있고 내용 또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현재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문학과 역사, 정치와 경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 양상 가운데 조선이 일본에 전한 제사의례(致祭) 양상과 조선의 왕이 하사한 악기의 면면에 대한 것, 조선통신사를 위한 일본 궁중음악인 가가쿠(雅樂)의 연주 양상²⁾ 및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남긴 춤 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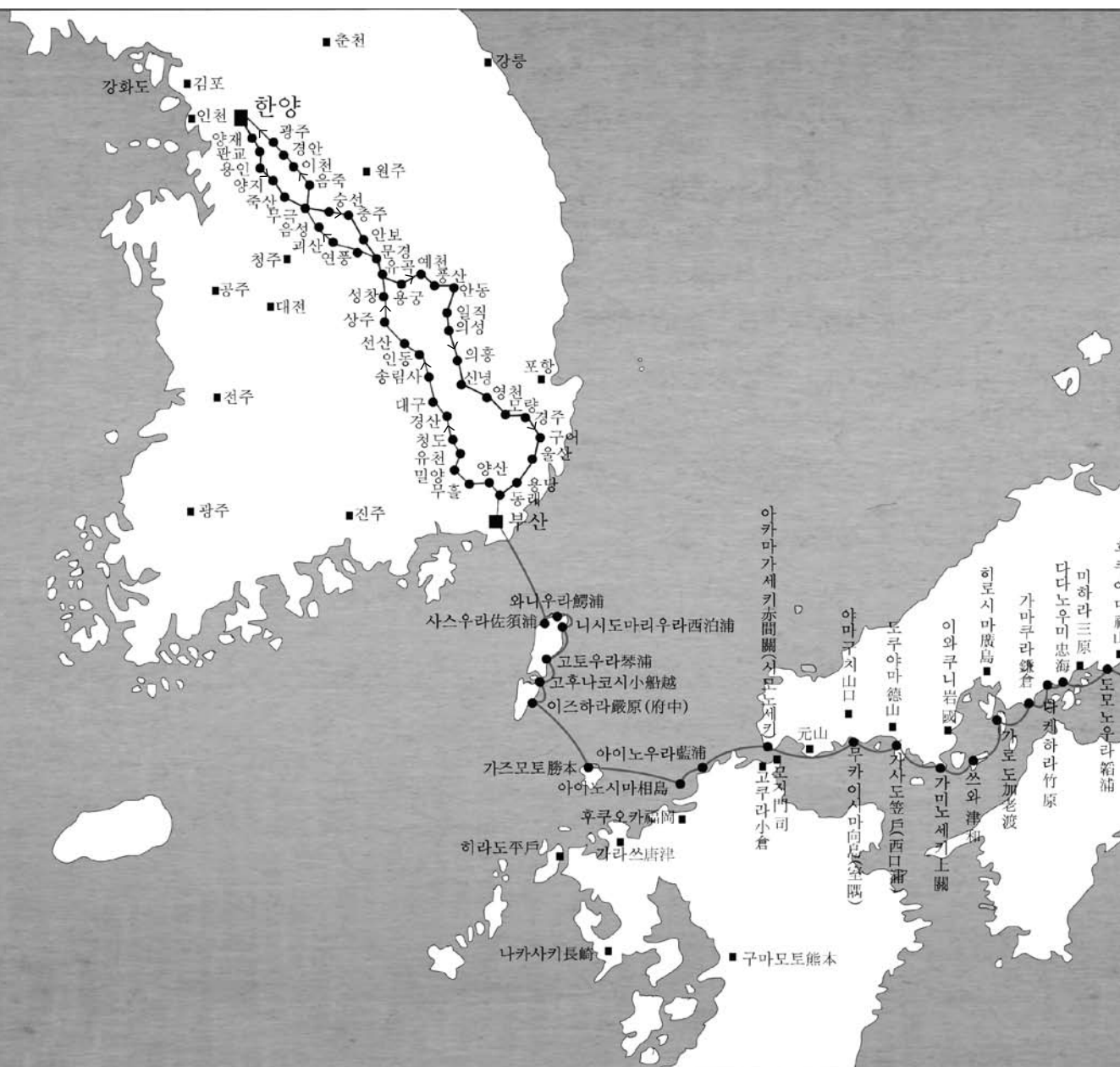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는 조선의 오례(五禮) 가운데 하나인 길례(吉禮), 즉 제사의례와 일본의 궁중음악인 가가쿠, 춤 등에 대한 지식은 물론, 일본의 국민(國賓)에 대한 의례(儀禮) 등의 내용을 조선통신사 활동과 관련지어 그 양상을 설명해야 하며 종합적인 문제의식을 지닌 채 학제적인 통섭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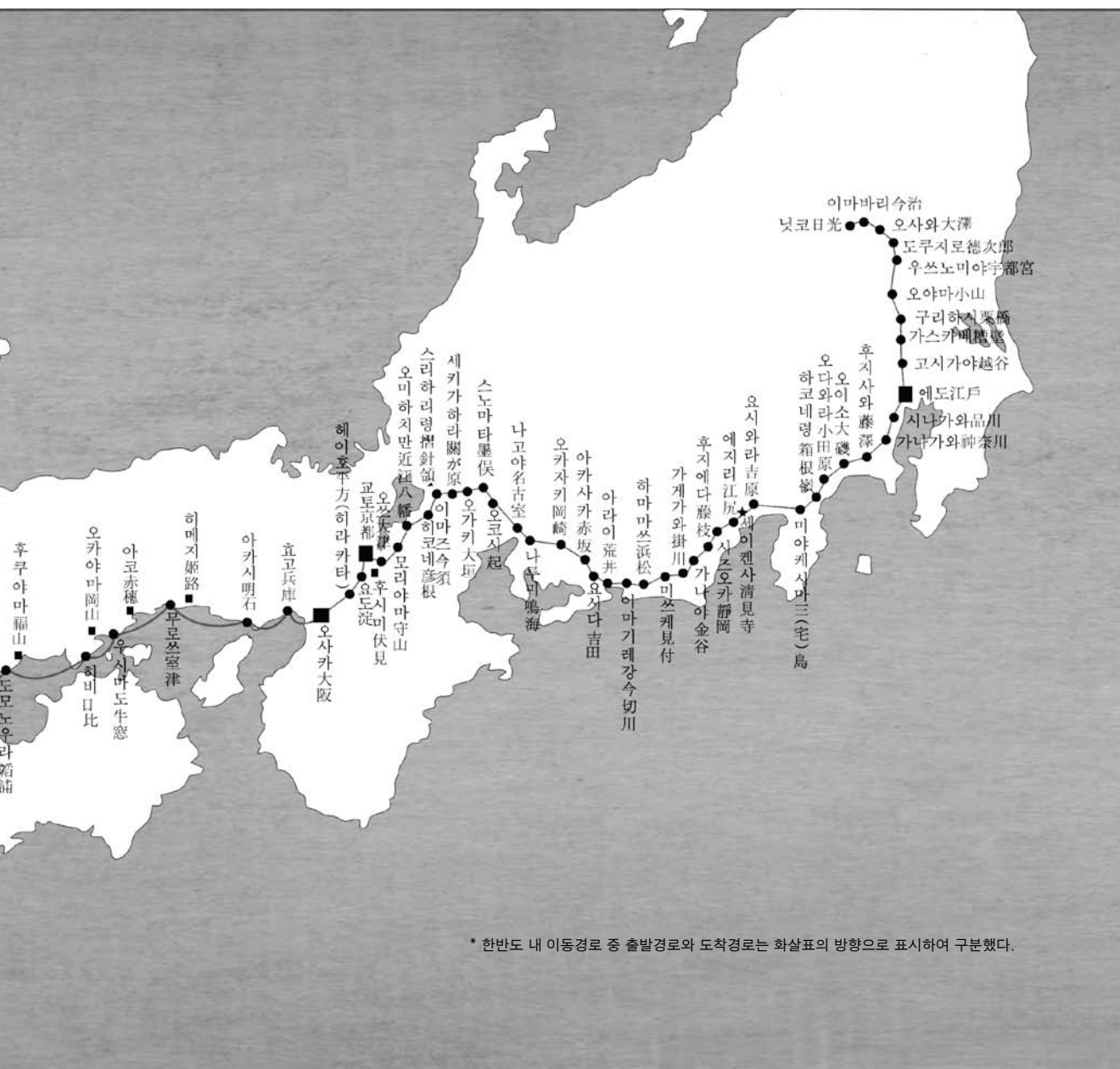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통신사로서 일본에서 활동한 여러 인물이 남긴 사행록(使行錄)의 내용을 분석하여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문화교류 현장 가운데 제사와 관련된 내용, 일본 궁중음악과 관련된 내용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제는 기존 연구에서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가 시급하다. 또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지 않고 ‘조율’과 ‘교류’의 현장으로 해석하기 위한 접근법이 요청된다. 조선통신사의 행렬과 같은 거대한 인적·물적 교류 현장은 지금 이 시대의 그 어떤 문화교류와도 다른 현장이었으므로, 그러한 현장에 대해 문화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선통신사는 300~500명의 거대한 집단 이동(움직임)을 통해 단기간(5~10개월)에, 정해진 코스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문화 전파와 교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특수성을 지닌 집단이므로, 기존의 시각에서 더 나아가 문화비교학적 시야를 갖추고 연구해야 할 대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2) 일본의 가가쿠는 중국계 악무인 좌방의 도가쿠(唐樂)와 한국계 악무인 우방의 고마가쿠(高麗樂)로 이분되어 현재까지 전한다.

〈그림 1〉 조선통신사의 이동 경로





* 한반도 내 이동경로 중 출발경로와 도착경로는 화살표의 방향으로 표시하여 구분했다.

〈표 1〉 12차 통신사행에서 전명의 시행일

회차	서기	조선 연대	일본 연대	정사	인원	출발	전명의 시행일
1	1607	선조 40년	게이초(慶長) 12년	여우길	467명	1월	6월 6일
2	1617	광해군 9년	겐나(元和) 3년	오윤겸	428명	7월	8월 26일
3	1624	인조 2년	간에이(寬永) 원년	정립	300명	8월	12월 19일
4	1636	인조 14년	간에이 12년	임광	475명	8월	12월 14일
5	1643	인조 21년	간에이 20년	윤순지	462명	2월	7월 19일
6	1655	효종 6년	메이레키(明曆) 원년	조형	488명	4월	10월 8일
7	1682	숙종 8년	덴나(天和) 2년	윤지완	475명	5월	9월 27일
8	1711	숙종 37년	쇼토쿠(正徳) 원년	조태억	500명	5월	11월 1일
9	1719	숙종 45년	교호(享保) 4년	홍치중	479명	4월	10월 1일
10	1748	영조 24년	간엔(寬延) 원년	홍계희	475명	11월	6월 1일
11	1764	영조 40년	메이와(明和) 원년	조업	472명	63년 8월	64년 2월 27일
12	1811	순조 11년	분카(文化) 8년	김이교	336명	11년 12월	12년 5월 22일

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한류’(韓流)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지에 전파되고 있는 우리 문화에 비견되는, 조선시대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펼친 문화활동 현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통신사의 길과 의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일본에 파견된 300~500여 명의 사행(使行) 인원은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 소요되는 긴 여정에 참여했다. 한양을 출발한 일행은 충주, 안동, 경주, 부산을 지나 쓰시마(對馬島), 이키(壹岐), 아이노시마(藍島), 시모노세키(下關), 가미노세키(上關), 우시마도(牛窓), 무로쓰(室津), 호고(兵庫),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히코네(彦根), 나고야(名古屋), 오카자키(岡崎), 시즈오카(靜岡), 하코네(箱根), 에도(江戸), 닛코(日光:1636, 1643, 1655)에 이르는 긴 여정에 오르게 된다. 이 가운데 1636(인조 14), 1643(인조 21), 1655(효종 6)의 세 차례 사행 때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묻은

넛코산(日光山)을 들르는 절차가 추가되어, 조선통신사의 가장 긴 여정은 서울에서 대마도, 에도를 거쳐 넛코까지 이르는 길이 된다.

이들의 여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제 분야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류를 알려 주는 역사적 현장 그 자체가 되었고, 통신사행을 다녀와 남긴 수많은 사행록(使行錄)은 조선시대 외교관계의 생생한 현장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해 주고 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에 걸친 통신사의 사행 일정과 이들 일정 가운데 가장 핵심 의례인 국서(國書)를 전달하는 전명의(傳命儀)를 시행한 날 짜는 <표 1>과 같다.

200여 년의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한양을 출발하여 일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조선통신사의 거대 이동은 조선과 일본의 역사에서 큰 사건의 하나로 자리하였다. 이들이 서울을 떠나 일본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행한 수많은 공식·비공식적 의례와 모임, 역사적 현장, 다양한 인물들 간의 교류, 이들이 접한 수많은 소식들, 낯선 문물과 풍광 등은 수백 명에 달하는 조선 사람들은 물론, 조선 사행들을 맞이하는 일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문화충격을 안겨 주었다.

조선통신사가 서울을 떠나 부산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공식적인 의례를 행하였다. 충주·안동·경주·부산 네 곳(1719년 이후는 부산 한 곳)에서는 각 지역의 관찰사가 베푸는 전연(餞宴)을 행하였고, 부산의 영가대(永嘉臺)에서는 출항하기 전에 해신에게 제사 지내는 해신제(海神祭)를 공식적인 의례로 수행하였다. 바닷길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또 대마도(對馬島)로 들어가서는 배에서 내리는 의례가 있었고, 통신사의 도착을 환영하기 위하여 대마도주가 주관하여 베푸는 연향인 하선연(下船宴)이 이어졌다. 또 충로에서는 관백(關白)³⁾이 보낸 사자가 통신사의 행렬을 문안하는 충로문안의(中路問安儀)를 행하였으며, 일행이 에도에 도착하면 도착을 환영하는 연향인 하마연(下馬宴), 에도에 도착하여 조선 왕의 국서를 전달하는 전명의, 국서에 대한 회답서를 받는 의례인 수회답의(受回答儀), 에도를 떠날 때의 연향인 상마연(上馬宴), 다시 대마도로 돌아와 배

3) 조선통신사를 맞이하는 상대는 천황이 아닌 도쿠가와 막부의 쇼군이었으나 조선 측 사료에서는 모두 '관백'이라 표현하고 있다.

를 타기 전에 배풀어지는 상선연(上船宴) 등이 통신사행이 참여하는 의례로 행해졌다. 그 밖에 1636년(인조 14), 1643년(인조 21), 1655년(효종 6)의 세 차례 사행 때 행해진 닛코에서의 치제(致祭)를 비롯하여 양측의 상견례 등의 의례가 행해졌다. 통신사행은 이러한 여러 공식 의례를 수행하면서 일본 전역을 다녀오게 된다.

이들 의례가 배풀어지는 장소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행이 대마도에 도착한 것을 환영하는 하선연의 경우 대부분 대마도주의 집에서 배풀어진다. 이때의 연향은 공식적인 것으로 의례와 공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연향의 성격을 갖춘 의례는 가장 성대한 규모라 할 수 있는 구작(九酌)의 규모인데, 이 모든 의례 절차는 양측이 함께 미리 상의하여 결정한다. 조선과 일본 양측이 합의하는 과정은 양국의 의례 조정의 현장이 된다.

통신사행이 에도에 도착한 이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례는 왕명을 전달하는 전명의이다.⁴⁾ 전명(傳命)의 기록에 따라 ‘전명례’(傳命禮)로 쓰기도 하는데, 조선의 사신과 일본의 관백 양측이 합의하는 좋은 날을 택하고, 의례를 행하기 전에 미리 의례의 절차를 기록해 놓은 의주(儀註)와 의례를 행할 장소와 배치 등을 그려 놓은 지형도를 펼쳐 놓고 내용을 점검·확인한 후 행해진다.

의례를 행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⁵⁾ 통상적으로 의례가 행해지기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 대마도주와 관반(館伴) 등이 사신의 숙소로 미리 찾아와 내용을 검토하는데, 혹시 의주 가운데 잘못된 내용이나 규례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시행 전에 미리 양측이 조절하여 정확한 의주를 마련한 후 의식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주의 조정 과정에서는 조선 측에서 주로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편이다. 또 의주에 대해 논의가 끝나면 이를 등사(謄寫)해서 다시 가져오는데, 사신들은 이 등사물을 통해 전명의에서 시행될 의례 준비에 임하게 된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의식이 뒤로 미루어지기도 한다.

4) 통신사행이 서울을 떠나 국서를 전달하는 의례인 전명(傳命)을 행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5) 『통문관지』(通文館志)와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에는 사신이 강호(江戶)에 도착하면 그 나라에서 전명(傳命)하는 날을 택하여 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사행록을 보면 양측의 합의로 날짜가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전명의를 상세한 의주 내용은 『통문관지』⁶⁾나 『증정교린지』⁷⁾의 ‘전명 의’ 항목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의주는 통신사행에서 실제로 행한 의주를 정리한 것이므로 사행 때에는 그 기록 내용을 참고하여 실제 의례를 거행하게 된다. 다만 『증정교린지』나 『통문관지』가 이루어지기 이전, 다시 말해 1708년(숙종 34) 이전의 사행 때에는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라든지 대일외교관계 내용을 기록한 『변례집요』(邊例集要)⁸⁾와 사행록 등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의주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조선통신사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조선 왕의 국서를 전달하는 ‘전명 의’이다. 조선 국왕의 국서를 맞이하기 위해 예를 갖추는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250여 년 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주요 외교 현장을 보는 일과 같다. 따라서 『증정교린지』에 제시되어 있는 ‘전명 의’의 기록을 통해 의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례가 행해지기 하루 전에 대마도주와 관반 등은 사신이 가져온 공사별폭(公私別幅)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별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실제 물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놓는다.⁹⁾ 행사 당일 이 되면 이들은 사신의 숙소로 찾아와 의례에 참여할 것에 대해 예의를 갖추어 청한다. 의장기를 갖추고 고취(鼓吹)를 연주하는 가운데 사신 일행이 출발한다. 이들 일행은 그 역할에 따라 걸어서 가거나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고 간다. 먼저 행렬이 지나갈 길을 정화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청도기(淸道旗)가 가장 앞서 간다. 이어 순시기(巡視旗), 영기(令旗)가 뒤따르는데, 이상은 걸어간다. 다시 절월(節鉞), 독기(藪旗), 대기(大旗)에 이어

6) 『통문관지』는 1720년에 초간본이 간행되었으나 초간본의 원저는 1708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어도 1708년 이전부터 통문관지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내용은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

7) 『증정교린지』는 『통문관지』의 ‘교린’(交隣) 조를 정리한 것이므로 1720년 이후에 만들어진 책으로 간주된다.

8) 『변례집요』는 예조의 전객사(典客司)에서 기록한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인 1598년부터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후 1841년(헌종 7)에 이르는 동안 일본과의 교린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하고 있으며 전체 19권 19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9) 현재 조선통신사가 다녀간 일본 각처의 박물관에는 조선통신사에게 받은 물건들을 적은 별폭과 물건들이 소장되어 있다. 버루, 황모필(黃毛筆), 진묵(眞墨), 부채, 흑마포(黑麻布), 색지(色紙), 잣, 인삼 등의 물건이 많이 보인다. 필자가 현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50여 년 전의 물건이지만 소장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았다.

고취 악대가 음악을 연주하며 따라가는데, 이상은 말을 타고 간다. 절월은 군령을 어긴 자에 대한 생살권(生殺權)을 상징하는 것이고 독기는 군대를 움직일 때 그
에 대하여 제사를 지낼 만큼 중요한 상징이므로 말을 타고 간다. 또 그 뒤를 따르
는 악대의 경우 국서를 모신 용정(龍亭)을 위한 것이므로 역시 말을 타고 간다. 이
어 사령(使令)이 걸어가고, 바로 뒤에 소동(小童)이 말을 타고 따른다. 이때 군관
(軍官)은 용복(戎服)을 입고 앞서서 국서를 모신 용정을 인도한다. 사신 이하는
공복(公服) 차림으로 수행하는데 삼사(三使)는 조선의 평교(平橋)에 앉고, 당상
역관(堂上譯官)은 왜국의 견여(肩輿)를 타며 당하역관(堂下譯官)은 말을 타고 간
다. 이처럼 각종 의장기 및 의물은 각각의 상징을 지닌 채 행렬에 투입된 것이며
각각의 위격에 따라 행렬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또 이들 행렬은 왕을 대신하는
'국서'의 전달을 위한 것이므로 왕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위용을
갖추게 되며 관백의 궁성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안전한 호위를 받게 된다.

조선 왕의 국서를 모신 행렬이 들어가게 될 관백의 궁성은 세 겹으로 되어 있
고 문은 아홉 겹[九重]으로 설치되어 있다. 성의 제5문에 이르면 고취를 그치고
의장대[軍儀]를 거두며 상관 이하는 말에서 내린다. 양국의 관계에서 군사 의장
을 조율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성의 제6문에 이르면 상상관(上上官) 및 제술
관(製述官), 양의(良醫)는 견여에서 내린다. 성의 제7문에 이르면 삼사가 가마에
서 내리는데, 내린 후 이들이 걸어가는 자리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때 대마도
주 및 장로가 관반 2인과 함께 모두 관복을 갖추어 입은 채 나와서 맞이한다.

성의 제8문에서는 국서를 모신 용정을 멈춘 뒤 수역당상(首驛堂上)이 국서
를 받들어 앞서 가면 삼사 이하가 뒤따른다. 안쪽 문으로 들어가 전(殿)의 계단 아
래에 이르면 품계가 높은 사람 2인이 맞아 읍하고 인도한다. 외혈청(外歇廳)에 이
르러 탁상 위에 국서를 봉안하는데, 이때 삼사는 동쪽 벽에 줄지어 앉아 있다가
잠시 후 인도를 받아 들어간다. 삼사가 국서를 받들어 헌(軒)을 지나 10여 동협
(東夾)의 외당(外堂)으로 들어가는데, 이곳은 내혈청(內歇廳)으로 정전과 벽 하
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이곳의 북쪽 벽에 국서를 봉안한다. 이때 삼사는 북쪽을
향하여 줄지어 앉는다. 이로부터 삼사들은 국서의 위치에 따라 이동하며 예를 취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삼사를 인도하여 관백의 정전(正殿)으로 들어가 행례(行禮)할 곳을 살펴 피고 돌아와 외당에 앉는다. 잠시 후 관백이 나와 정당(正堂)에 앉는다. 당(堂)은 삼층 구조인데 층의 높이는 두 치 정도 된다. 수역당상이 국서를 받들고 들어가 서향(西向)하여 무릎을 꿇으면, 대마도주가 무릎을 꿇고 받아 집정(執政)에게 전한다. 집정이 이를 받아 관백의 오른쪽에 두면, 장관(將官) 등이 공경히 받들고 들어간다. 예단(禮單)은 제2층의 당에 벌여 놓는다. 예단 가운데 포함된 안마(鞍馬)는 뜰에 진열한다. 집정 2인이 대마도주에게 말을 전하여 삼사를 인도해 들어가 예물을 전하기 전에 공례(公禮) 4배를 하도록 하고, 4배 후 외당에 나와 앉는다.¹⁰⁾ 관백은 근시(近侍)로 하여금 국서를 펼쳐 읽도록 하고, 읽기를 마친 후 예폐(禮幣) 등의 물품을 거두고 장관 등이 또 삼가 받들어 들어간다. 사신들의 사폐(私幣)를 진설하고, 삼사가 또 들어가 사폐 4배를 행한 뒤에 외당에 나와 앉는다. 집정 등 4인이 관백의 말로써 위로하면 사신은 감사하다고 답한다. 이후 주례(酒禮)를 행한다.¹¹⁾

대마도주가 사신을 인도하여 다음 당의 동쪽 벽에 앉도록 하면, 집정 등이 관백 앞과 삼사신(三使臣) 앞에 각각 찬반(饌盤)을 진설한다. 집정이 토배(土杯)¹²⁾를 관백에게 올리면, 장관 1인이 금으로 만든 술잔과 토배를 가지고서 상당(上堂)에 꿇어앉는다. 관백이 먼저 한 잔을 마시고 상사(上使)에게 권하면 상사는 당에 올라가 마시고 재배한 후 물러난다. 관백이 다시 마신 후 부사에게, 그 다음으로 중사관의 순으로 권하는데 앞의 의례와 같다. 이어 상상관이 기둥[楹] 안에서 4배례를 행하고, 상관은 기둥 밖 마루에서, 그 이하는 각각 위치한 장소에서 같은 예를 행한다.¹³⁾

집정 4인이 다시 나와서 관백의 말을 전하여 진무(振舞)할 것을 청하는데,

10) 이때 행한 4배례에 대해 마땅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한 기록이 조엄의 『해사일기』에서 보인다. 趙瞻, 「三使行四拜禮, 四拜禮未知始於何時, 而誠可寒心也」, 『海槎日記』 四, 1764. 2. 27(己酉).

11) 숙종 37년 신묘(1711) 통신사행 때에는 사폐를 바치기 전에 다례(茶禮)가 있었으며 임금의 안부를 묻는 예도 있었다.

12) 토배는 흙으로 만든 잔이다. 한 번 쓰고 버린다. 경사스런 일이 있을 때 쓴다.

13) 상관 이하는 매 반(班)마다 2회 나누어 예를 행한다. 취수(吹手)와 사령(使令)은 뜰 가운데서 행한다.

“관백이 친히 연향을 주관하고자 했으나 사신이 피곤할까 염려하여 관백이 아닌 삼납언(三納言)에게 대신 주관하도록 맡기고 들어간다”는 말을 집정을 통해 전한다. 사신은 다시 들어가 작별 의례(辭禮)로서 재배하고 나온다.

대마도주가 사신을 인도하여 다음 당으로 들어가면 삼납언이 나와 맞이한다. 서로 읍(揖)한 후 동·서로 나누어 앉아 3작(三酌)한 후 마친다. 상상관은 내혈청, 상·중·하관은 각각 자리에서 연향을 받는데, 자리마다 각각 주관하는 관리가 따로 있다. 연회가 끝나고 나오면 집정 4인이 읍하고 동협(東夾)의 밖에서 전송한다. 관반과 대마도주 등이 차례로 전송하고 삼사 이하의 앞서 내렸던 위치에서 가마를 타거나 말을 타고 돌아온다.

『증정교린지』에 기록된 위의 의주는 통신사행이 참여하여 기록으로 남긴 여러 통신사행록에 기록된 ‘전명의’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1607년의 사행에서는 첫째 문에서 고취를 정지시키고 사신은 안문에 이르러 가마에서 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¹⁴⁾ 이는 당시 관백의 궁이 세 겹[三重]의 토성(土城) 구조였기 때문이다.¹⁵⁾ 1617년의 사행에서는 고취를 모두 성문 밖에 머물러 두도록 하였고 사신이 가마에서 내린 곳은 삼중문 안으로 들어간 후였다. 이 당시도 관백의 궁이 세 겹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1624년 사행의 경우 사신의 가마가 셋째 문 안에서 내릴 때까지 고취를 연주하였다. 당시 관백이 그 소리를 듣고자 청했기 때문이다. 1636년의 사행에서는 넷째 문을 들어섰을 때 고취의 연주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일곱번째 문에 들어갔을 때 가마에서 내리기를 청했다.¹⁶⁾ 1711년에는 다섯째 문에 도착하여 상관이 하가 말에서 내려 고취를 정지하고 의장을 거두었으며 일곱째 문에 이르러 교자에서 내려 『증정교린지』의 의주와 내용이 같다.

14) 慶運, 「三使臣聯轡詣關白宮, 到第一門, 旗槍吹手止焉. 各員以下皆下馬步入, 使臣至內門下轎,」『海槎錄』下, 1607. 6. 6(丁酉).

15) 慶運, 「關白宮設三重土城, 城下皆引海爲壕, 舟楫通行, 高架板橋, 舟行其下,」『海槎錄』下.

16) 의장의 호위를 몇 번째 문에서 그치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관백의 성의 구조를 확실하게 파악한 후 상세한 논의가 가능할 듯하다. 기록자에 따라 외성(外城)과 내성(內城)을 포함하여 성문의 순번을 기록한 것도 있고 성문 모두에 순번을 따로 매겨 기록한 것도 있으므로 이하 의장의 해제에 대한 논의나 사신이 가마에서 내린 문의 위치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전명의를 대해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사행록은 1719~1720년에 통신사행에 참여한 신유한의 『해유록』(海遊錄)인데 이 내용은 『증정교린지』의 기록과 주요 의절이 일치한다. 따라서 18세기 통신사행에서 행한 전명의를의 주요 의절은 대부분 『증정교린지』의 내용을 통해 구체적 실상이 확인됨을 알 수 있다.

전명의를에 참여하는 삼사신의 복식은 금관과 옥패, 조복에 홀을 잡는 복식이다. 그리고 조선의 가마를 타며, 당상역관 세 사람과 상통사는 흑단령을 입고 현교를 타며, 서기와 의관도 흑단령에 사모를 쓰며 띠를 띠고, 군관은 용복, 원역은 단령(團領)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백은 천자포(淺紫袍)에 검은 사모(紗帽)를 쓰는데 조선의 오사모(烏紗帽)와는 제도가 다르다.

국서를 전달하는 관백궁에서 관백이 앉는 자리는 세 단계의 가장 뒷자리인 상당이다. 그 바로 아랫단에는 국서상(國書床)을 놓아 국서를 봉안하였고, 셋째 단에는 예폐를 진열해 놓고 집정 이하 4품 이상이 그 좌우에 앉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각종 의례는 공식적인 성격을 갖는 의례로서 그 내용 대부분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계열의 오례서와 대외관계에 관한 공식 기록을 담은 『해동제국기』, 『통문관지』, 『교린지』(交隣志), 『증정교린지』, 『변례집요』, 『통신사등록』(通信使騰錄), 『동문휘고』(同文集考) 등의 문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실제 사행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록한 여타 사행록에는 실제 현장에 참여하여 의례를 행한 내용이 다양한 필체로 현실감 있게 기록되어 있어 이들의 사행에서 벌어졌던 생생한 모습을 접할 수 있다.¹⁷⁾

3.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전한 제사의례와 악기

통신사행 가운데 1636년(인조 14)과 1643년(인조 21), 1655년(효종 6)의 세 차례 사행 때에는 다른 사행 때와는 달리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묻은 닛코산(日光

17) 조선통신사의 공식 의례는 송지원, 「조선통신사의 의례」, 『조선통신사연구』 2호, 조선통신사학회, 2006에서 의례 각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상 전명의를에 대한 내용은 위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山)을 들르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닛코산에 묻은 것은 그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이 죽으면 고향에 묻었다가 1주가 될 때 닛코산에 다시 옮겨 묻어 관동 8주의 수호신이 되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긴 바 있다. 1616년(광해군 8)에 이에야스가 죽고 그로부터 1년 뒤 그의 유언에 따라서 유체를 닛코산에 옮겼고, 교토의 천황에게서는 ‘동조대권현’(東照大權現)이라는 신호(神號)를 부여받았다. 동조사는 1645년에 동조궁(東照宮)으로 격상되었으며, 당시 천황은 선지(宣旨)를 내려 성역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본 측은 닛코산 사당을 준공한 후 사신을 조선에 보내 왕의 편액과 시문을 요청하였고 조선의 조정에서는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서 당시 조선의 왕자인 의창군 이광(義昌郡 李瑬)은 ‘일광정계’(日光淨界)라는 편액을 썼고,¹⁸⁾ 종을 주조하여 보내기도 하였다.¹⁹⁾

닛코산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을 치른 이후 소원해진 조선과 일본 사이의 화친을 위해 애쓴 인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모신 닛코산의 사당에 통신사행이 방문해 줄 것을 원하였다. 1636년(인조 14) 통신사행이 에도에 머물고 있을 때 이들은 닛코산의 방문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사신들은 그들의 요청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²⁰⁾ 이때의 요청은 당시의 관백이던 이에미쓰(家光)가 그 할아버지 때에 화친을 이루었다는 이유에서 분향(焚香)을 원한 것이었다.

이후 1643년(인조 21)의 사행 때에는 닛코산에서 조선의 왕이 내려 준 제사를 행하게 되었다. 인조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 치제의(致祭儀)를 행한 것이었다. 당시의 사행은 윤순지(尹順之)가 상사로, 조경(趙綱)이 부사로 참여하였다. 조선에서 내려 준 제사인 치제에는 제문(祭文)과 제물(祭物)을 갖추어 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때의 사행에는 특별히 “닛코산에서의 제사에 관한 절목을 미리 강

18) 『仁祖實錄』 43, 인조 20년 2월 18일(戊午).

19) 이때 조선이 보내 준 종은 현재 동조궁에 보관되어 있다.

20) 任統, 『丙子日本日記』, 1636년 12월 17일(丁亥).

구”하였고²¹⁾ 조정에서는 성종 대의 오례서인 『국조오례의』의 제사의례에 준한 내용을 마련하였다. 결국 일본에 조선의 제사의례를 전하게 된 것이다.

조선에서는 오례의 하나인 길례의 제사 형태를 따라 초헌(初獻)과 아헌(亞獻), 종헌(終獻)의 삼헌을 갖추었다. 이는 인귀(人鬼)에 대한 제향²²⁾으로 행한 것이다.

권현당과 대유원의 치제는 사신이 미리 의주를 준비하였고 독축관(讀祝官)을 미리 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측에서 “소리가 맑고 잘 읽는 사람을 데리고 와 달라”는 뜻을 비추어 특별히 요청한 것이다. 찬자(贊者)와 알자(謁者)도 일행 중 적당한 사람으로 가려서 정하였다.

제사에 참여할 때에는 정사 이하 모두 공복 차림으로 임했다. 제문은 용정에, 폐백(幣帛)은 채여(彩輦)에, 전물(奠物)은 가자(架子)에 각각 받들고 가 분향과 전폐(奠幣)를 올린다. 초헌관은 정사가 맡았으며 축문을 읽는 절차가 이어진다.²³⁾ 초헌례에 이어 아헌례가 행해지는데, 아헌관은 부사가 맡았다. 종헌례에서는 종사관(從事官)이 종헌관을 맡아 행하였다. 종헌 이후 이어지는 음복례(飮福禮)나 철변두(徹邊豆) 절차, 그리고 폐백을 묻는 ‘망예’(望瘞) 절차는 의례에 나타나 있지 않아 시행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치제의 방식이고 삼헌관이 모두 조선의 통신사이므로 모든 제례는 조선의 의례로 거행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축문을 태우는 절차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생략되었다. 축문을 만세의 보물로 후손에게 전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당시 축문을 태우지 않고 보관하겠다는 그들의 요청은 사신에게 특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때의 치제는 일본에 조선의 제사의례가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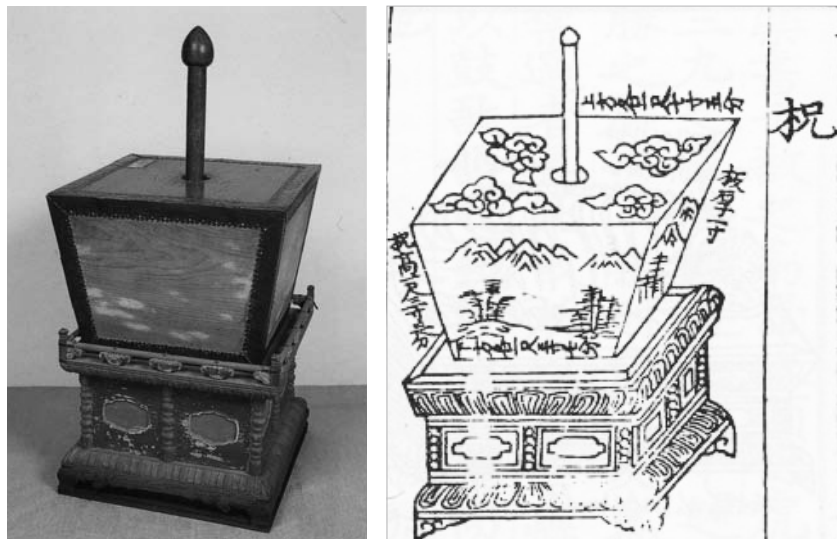
『증정교린지』에는 ‘일광산치제의’(日光山致祭儀)라는 항목에서 이 의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제사를 지내게 된 역사와 과정, 그리고 의례, 의물, 폐백, 의

21) 『仁祖實錄』 44, 인조 21년 1월 23일(戊午).

22)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서는 제사 지내는 대상에 따라 땅에 대한 제사는 ‘제’(祭), 하늘에 대한 제사는 ‘사’(祀), 사람에게 대한 제사는 ‘향’(享)으로 그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23) 이때 읽은 축문은 제향이 끝난 후 그들의 요청으로 불태우지 않았는데, 이를 보배로 삼는다고 하였다. 『日光山致祭』, 『增正交隣志』 5.

〈그림 2〉 동조궁 소장 축(祝)의 실물(왼쪽)과 『악학궤범』에 실린 축 그림(오른쪽)



〈그림 3〉 동조궁 소장 어(敵)의 실물(왼쪽 위), 현재 국립국악원이 소장하고 있는 어(왼쪽 아래), 『악학궤범』에 실린 어 그림(오른쪽)



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655년의 치제에는 권현당(權現堂)에 분향(焚香)하기 위한 향, 폐백으로 사용할 준마(駿馬) 1필, 백단향(白檀香) 2냥, 은향합(銀香盒) 1부(部), 홍상건사라(紅床巾紗羅) 1필, 주홍곡수좌면지(朱紅曲水坐面紙) 2장을 보냈다.

이 당시 치제할 때의 폐백은 금단(錦段) 3필, 대화촉(大花燭) 2쌍, 대부용향(大芙蓉香) 30주(炷), 채화석(彩花席) 10장, 자잔대구(磁盞臺具) 1죽(竹), 대접[大貼] 3죽, 보시기[甫兒] 3죽, 석린(石鱗) 10근, 백단향 2냥, 은향합 1부, 홍상건사라 1필, 주홍곡수좌면지 10장, 백랍촉(白蠟燭) 3쌍 등이었다.

또 1655년(효종 6)의 사행 때 이예미쓰의 묘당인 대우원(大猷院)에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효종이 직접 쓴 ‘영산법계승효정원’(靈山法界崇孝淨院)이라는 여덟 글자를 하사하였고 또 시문에 뛰어난 신하에게 제문을 써 치제하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제례용 아악기 10종을 하사하였다. 이때 하사한 악기로는 슬(瑟)·어(敵) 각 1개, 금(琴)·적(笛)·지(簾)·악(簫)·관(管)·훈(埴) 각 1개, 축(祝) 1개, 어를 치는 채인 진(簫) 1개, 소(簫) 1개 등이 있다. 이 악기들은 조선왕실에서 사용하는 아악기의 모양 그대로 새롭게 제작하여 일본에 전해 준 것으로, 악기의 척도는 모두 『악학궤범』(樂學軌範)의 기록을 그대로 따라 제작한 것이다.²⁴⁾

이들 악기의 실물은 현재에도 닛코의 동조궁에 보존되어 있다.²⁵⁾ 이 가운데 축²⁶⁾은 푸른 칠 부분이 벗겨져 있었지만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어는 서어(鉏齧)가 16개만 남아 있어 11개가 떨어져 나간 것을 알 수 있다.²⁷⁾ 또 그 모양 면에

24) 『通信使謄錄』2, 1655. 3. 13(乙未).

25) 필자는 지난 2008년 8월에 닛코의 동조궁을 답사하여 효종의 친필과 하사한 악기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였다. 효종의 친필은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었다. 효종이 하사한 악기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슬·축·어·소가 있고 나머지 금·적·지·관·훈·악·진 존재 여부는 알 수 없었다. 당시 안내해 준 학예사에게 존재 여부를 확인했으나 더 이상의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들이 작성해 놓은 통신사 관계 자료 목록에는 현존하는 네 가지만 적혀 있을 뿐이다.

26) 축은 아악기로서 악대의 동쪽에 배치하여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치는 악기이다. 축을 동쪽에 배치하는 것은 봄이 만물 생성의 시작임을 상징하는 것이다(『祝』, 『雅部樂器圖說』, 『樂學軌範』, 6).

27) 어는 아악기로서 악대의 서쪽에 배치하여 음악이 끝날 때 마무리하는 의미로 치는 악기이다. 등 부분의 톱니 모양의 서어는 27개로서 3·9의 수로서 양수의 궁(陽數之窮)이다(『敵』, 『雅部樂器圖說』). 따라서 동조궁이 소장하고 있는 어의 서어 부분은 11개가 떨어져 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도 동조궁이 소장한 ‘어’와 『악학궤범』 도설에 보이는 ‘어’의 등 부분의 경우 비교적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음에 반해, 국립국악원에 전승되고 있는 어의 등 부분은 상당한 곡선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등 모양이 평평한 어가 비교적 고제(古制)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조궁 소장의 어는 원래 흰 빛으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 칠이 거의 벗겨져서 나무 빛깔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소는 원래 16관이나 죽관(竹管)이 7개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4. 조선통신사를 위한 일본 궁중음악 연주

조선통신사의 행렬이 닛코까지 가지 않았던 여덟 차례의 사행 때 에도는 이들 일행의 최종 목적지였다. 에도에서 왕의 국서를 전달하는 전명의를 행하고 나면 통신사 일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한 것이다. 전명의를 행하고 난 후에는 일본 측에서 통신사행을 떠나보낼 때 행하는 상마연을 베풀어 준다. 상마연은 통신사가 참여하는 연향 가운데 가장 성대한 규모로 행해지는데 이는 통신사 일행이 그 이전에 보았던 어떤 의례에 비해서도 가장 엄숙하고 화려한 경험으로 자리하게 된다.

에도에서 행해지는 상마연은 조선통신사가 참여하는 연향 가운데 가장 성대한 규모로 행해지므로 여러 사행록 중에는 이때의 연향 장면을 기록한 것이 많다. 보는 사람에 따라 연향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 다르지만 몇몇 사행록의 기록에서는 이때 연주된 가가쿠(雅樂)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에도에서 연주되는 가가쿠라면 당시 조선인들이 접한 일본 왕실의 공연예술 가운데에서도 백미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가가쿠를 듣고 묘사해 놓은 내용을 접하게 되면 낯선 문화에 대한 당시 조선인들의 인식체험 내용의 수위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가가쿠 그 자체이다. 주지하듯이 일본의 궁중음악인 가가쿠는 한국과 중국에서 전해 준 것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형성된 것이다. 가가쿠는 9세기 초반의 헤이안(平安)시대

(794~1192)에 현재의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다. 가가쿠에는 도가쿠(唐樂)와 고마가쿠(高麗樂)의 두 종류가 각각 악기 편성, 음악 구성의 내용에 따라 간켄(管絃), 부가쿠(舞樂)의 두 가지 형태로서 현재 전해지고 있다. 간켄과 부가쿠는 악기 편성법이 약간 다를 뿐이고 도가쿠와 고마가쿠로 구성되어 있다.²⁸⁾

외국에서 일본에 처음으로 음악과 무용을 전해 준 것은 고대 한국으로,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 다양한 문화와 더불어 음악과 무용을 전해 주었다. 이들 삼국 가운데 백제의 악인은 일본에 머무르며 음악 활동을 하여 고구려, 신라의 경우와 다르다.²⁹⁾ 이렇게 고대의 한국에서 전해진 음악은 결국 가가쿠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헤이안시대에 단행된 악제 개혁 기간에 좌방의 도가쿠와 우방의 고마가쿠로 정착된 것이고, 고마가쿠에는 고구려악·백제악·신라악이 포함된 것이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접하게 된 가가쿠 가운데에는 이처럼 고대 한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1711년(숙종 37) 조태억(趙泰億)을 정사로 하고 임수간(任守幹)을 부사로 한 통신사행을 위한 상마연에서 공연된 가가쿠 가운데 우방에 속하는 고마가쿠의 공연 종목을 상세히 볼 수 있다. 1711년 당시 사행을 마친 후 부사로 참여했던 임수간이 남긴 『동사일기』(東槎日記)에는 상마연에서 행해졌던 공연의 내용이 다른 기록에 비해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어 마치 음악회의 공연 내용을 중계하듯이 연행 악무가 소개되어 있다. 이때에 연행된 악무 가운데에는 고마가쿠로서 현재에도 일본의 궁중음악으로 전하는 곡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가가쿠 중에 고마가쿠에 속하는 음악으로는 신조소(新鳥蘇), 고조소(古鳥蘇), 퇴주독(退走禿), 진주독(進走禿), 연희악(延喜樂), 귀덕(貴德), 호접(胡蝶), 호덕악(胡德樂), 팔선(八仙), 박모(狛鋒), 납증리(納曾利), 황인정(皇仁庭), 식파(埴破), 진소리고(進蘇利古), 소리고(蘇利古), 능절(綾切), 부수

28) 동양음악연구회 편, 『동양음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29) 이자선, 『일본전통 공연예술』, 제이앤씨, 2007, 36쪽.

(數手), 인화악(仁和樂), 장보악(長保樂), 신말갈(新靺鞨), 임가(林歌), 지구(地久), 등전악(登殿樂), 백병(白浜)의 24곡이 있다.³⁰⁾

1711년의 연향에서 공연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다섯 곡은 현재 연주되고 있는 스물네 곡의 고마가쿠 목록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즉 장보악,³¹⁾ 인화악,³²⁾ 고조소,³³⁾ 임가,³⁴⁾ 납증리(나소리)³⁵⁾의 다섯 곡이 그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스물네 곡의 고마가쿠 모두가 춤이 수반되는 부가쿠, 즉 무악(舞樂)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당시 조선통신사가 본 고마가쿠는 모두 춤과 반주가 수반되는 음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들 음악은 조선에는 더 이상 전하지 않는 곡들이다. 따라서 문화전파이론 가운데 하나인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가장 고형이 남아 있다”는 이론을 실제 확인할 수 있다.³⁶⁾ 조선통신사를 위한 공연에서 연행한 악무와 현재 가가쿠로 연행되고 있는 음악 양자를 비교해 보는 일도 필요한 현실이다.

18세기 전반, 일본 관백의 정전(正殿)에서 조선통신사를 위해 행해진 연향에서는 일본 궁중악무 가운데 엄선하여 프로그램이 짜여져 연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행록의 내용 가운데에는 당시의 무대 규모와 무대 장식, 악기 배치, 그리고 영인(伶人)들의 복식과 춤사위, 공연 순서 등의 내용도 보인다. 또 사신들이 그러한 악무를 보고 들은 후 느끼는 정서, 즉 일본 악기가 가지고 있는 음향의 특이함에 이질감을 갖게 된다는 식의 표현도 보인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이때의

30) 이지선, 『일본전통 공연예술』, 53쪽.

31) 현재 일본 궁내청에서 전승되는 장보악은 네 명이 추는 평무(平舞)이고 곡종(曲種)은 중곡(中曲), 조(調)는 파(破)는 고려일월조(高麗壹越調), 급(急)은 고려평조(高麗平調)이다(高円宮妃久子, 『宮内庁楽部雅楽の正統』, 東京: 扶桑社, 2008, 118쪽).

32) 현재 일본 궁내청에서 전승되는 인화악은 네 명이 추는 평무이고 곡종은 소곡(小曲), 조는 고려일월조이다(高円宮妃久子, 『宮内庁楽部雅楽の正統』, 188쪽).

33) 현재 궁내청에서 전승되는 고조소는 네 명이 추는 평무이고 곡종은 대곡(大曲), 조는 고려일월조이다(高円宮妃久子, 『宮内庁楽部雅楽の正統』, 188쪽).

34) 현재 궁내청에서 전승되는 임가는 네 명이 추는 평무이고 곡종은 소곡(小曲), 조는 고려일월조이다(高円宮妃久子, 『宮内庁楽部雅楽の正統』, 119쪽).

35) 현재 궁내청에서 전승되는 나소리는 두 명이 추는 주무(走舞)이고 곡종은 소곡(小曲), 조는 고려일월조이다(高円宮妃久子, 『宮内庁楽部雅楽の正統』, 112쪽).

36) 중국의 문묘제례악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현재까지 연주되고 있는 사정이 이와 비슷하다.

연향에서 연행된 악무 가운데 많은 수가 고구려·신라·백제에서 전해 준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듯하다. 일찌감치 일본에 들어가 그들의 궁중음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 악무를 보고 ‘이질감’을 느꼈다 하는 것은 그것이 낯선 문화로 유입된 이후 이미 ‘일본화’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조선통신사들을 위해 배운 연향에서 고마가쿠의 하나로 연행되었던 다섯 종의 악무 공연 상황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³⁷⁾

먼저 공연 무대는 서너 간 정도의 규모로 뜰에 설치하였다. 난간은 붉은 빛을 띠었고 금빛 장식을 했으며, 무대의 높이는 두어 자 정도 되었다. 무대의 남·북쪽에는 판으로 된 계단을 설치했으며 밑의 정원에는 푸른 비단 장막에 유소(流蘇; 수술)을 드리웠다. 또 무대 위에는 칠을 한 판을 깔았으며 비단 돛자리를 깔았다. 무대의 양옆에는 두 개의 큰북을 두었는데, 그 직경이 거의 5, 6척 되는 것이었다. 북의 몸통은 둥글고 위는 뾰족하여 마치 불꽃과 같은 모양을 하였으며 사면에는 용과 봉황, 구름무늬를 새겼고 금으로 칠했다. 이러한 18세기의 무대장치는 현재 일본의 가가쿠를 연주하는 무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궁내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가가쿠의 연주 시에도 여전히 남·북쪽에 계단을 설치하고 붉은 난간이 있고 두어 자 되는 높이의 무대를 설치한다. 또 무대 양옆에 불꽃과 같은 모양의 북을 설치해 놓는 것도 그대로이다. 북의 사면에 용과 봉황, 구름무늬를 새기는 방식도 여전히³⁸⁾ 조선통신사들이 일본에서 감상하고 묘사해 놓은 고마가쿠의 연행 장면은 마치 그림을 그려 놓은 듯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연향에서 이루어진 전체 공연 종목은 13곡이었는데, 이 가운데 4, 6, 8, 10, 12번째 공연의 종목이 고마가쿠였다. 네번째에 공연된 장보악은 봉관(鳳冠)에 푸른 옷을 입은 여섯 명의 영인이 추는 춤이다.³⁹⁾ 그러나 현재 궁내청에서 연행되는 장보악은 네 명이 추는 춤으로 되어 있는데, 18세기와 다르게 전승된

37) 任守幹, 『東槎日記』, 乾의 1711년 11월 3일 기사에 묘사된 내용을 통해 서술하였다.

38) 高門宮妃久子, 『宮内庁楽部雅楽の正統』에 일본 궁내청 가가쿠의 연주 사진이 상세하다.

39) 任守幹, 「次奏長保樂, 鳳冠綠衣者六人來舞, 此則高麗樂部云」, 『東槎日記』, 乾.

것인지 인원수를 공연 때마다 다르게 하여 연행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푸른 빛의 옷을 입고 추는 점은 현재에도 이어진다.

여섯번째에 공연된 인화악은 푸른 옷을 입은 4인이 꽃과 초미(貂尾)를 꽃고 절에 맞추어 춤추는데, 여유 있는 태도에 음조가 화평하다고 했다.⁴⁰⁾ 현재 전승되고 있는 인화악 또한 4인이 연행하며 푸른 옷이라는 점도 같아 인화악의 외형은 거의 그대로 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덟번째에 공연된 고조소는 현재 일본에 전해지고 있는 신조소와 고조소의 두 곡 가운데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조소를 추는 영인의 복식은 소화관(蘇花冠)과 잡록의(雜綠衣)에 푸른 옷자락을 끌며 칼을 차고 등 뒤에 홀(笏)을 꽂은 사람 4인이 와서 춤을 추는데, 두 사람이 먼저 물러가 마치 파리채 같은 모양의 불자(拂子)를 가지고 오면 두 사람이 이를 받아서 춤을 춘다.⁴¹⁾ 고조소가 현재 전승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18세기의 조선통신사가 묘사하고 있는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푸른 빛의 옷 뒷쪽 자락을 길게 늘어뜨려 끄는 모습과 칼을 차고 뒤쪽에 홀을 꽂은 복식 및 4인이 추는 춤이라는 사실 등이 유사하다. 고조소 또한 앞서 살펴본 인화악처럼 3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외형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열번째에 공연된 임가를 묘사한 장면을 보자. 통신사의 기록에서 보이는 임가는 옅은 녹색 옷에 황색과 백색의 쥐 모양의 문양인 황백서(黃白鼠)를 수놓았다고 했다. 옷자락이 긴데, 역시 봉관을 쓴 4명이 추는 춤이라 했다.⁴²⁾ 현재 궁내청에서 연행되고 있는 임가도 4인이 연행한다. 또 옅은 녹색 옷을 입었고 황색의 겹옷에 황색과 백색의 쥐 모양의 문양인 황백서를 수놓은 점에서 유사해 보인다. 다만 현재 입고 있는 옷의 자락은 길지 않아 전승되는 과정에서 달라진 것이라 생각된다.

40) 任守幹, 「次奏仁和樂, 青衣四人, 簪花插貂, 舞節舒緩, 音調和平, 亦高麗樂云」, 『東槎日記』 乾.

41) 任守幹, 「次奏古烏蘇, 花冠雜綠衣, 曳綠裾佩劍, 背後插笏者四人來舞, 兩人先退, 取拂以來, 狀如蠅鞭, 兩人受以舞之, 即高麗部云」, 『東槎日記』 乾.

42) 任守幹, 「次奏林歌, 淺綠衣, 繡以黃白鼠, 曳花裾着鳳冠者四人, 亦高麗部云」, 『東槎日記』 乾.

열두번째에 공연된 나소리는 무원 2명이 청목가면(靑木假面)을 썼는데, “그 가면은 두 어금니가 몹시 길고 눈동자가 튀어나왔고, 입을 딱 벌렸으며 채색으로 수놓은 푸른 갑옷에 푸른 비단 실로 단을 들렀다. 그리고 악(簫)을 잡고 춤을 춘다”⁴³⁾고 했다. 나소리 공연의 내용은 현재 궁내청 전승의 연행 장면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금니가 길고 눈동자가 튀어나온 가면의 모습은 지금 연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임수간이 묘사해 놓은 기록 내용을 현재 연행되고 있는 가가쿠와 비교해 보면 그 기록이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조선통신사를 다녀와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남겨 놓았지만 그 기록 내용의 현장성 혹은 사실성은 기록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해도 기록자의 시선에 포착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임수간이 기록한 일본 궁중음악의 공연 장면은 마치 녹화하듯 기록해 놓아 그 현장성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당시 연주했던 반주 음악과 지금 연주되고 있는 반주음악이 변하지 않고 전승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임수간은 이와 같은 가가쿠의 연행 내용을 낱낱이 기록한 후 18세기 당시 일본에서 고마가쿠를 연행하고 있는 연주자 가운데에는 혹 고려인의 자손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소회 없이 무덤덤하게 기록해 놓았다.⁴⁴⁾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전해진 고마가쿠를 2,000년이 지난 18세기라는 시점에, 조선통신사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조선인의 눈으로 본 그 현장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특별한 소회가 있어야 할 듯도 하지만 통신사들은 그 점에 대하여는 별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 18세기라는 시기는 삼국시대로부터 이미 긴 시간이 흐른 후이고, 또 조선통신사들이 귀로 확인하며 들었던 음악의 악기 편성 또한 이미 일본화된 상태이므로 그 외형적인 요인들만 보았을 때 큰

43) 任守幹, 「次奏納蘇利, 舞者兩人, 帶靑木假面, 雙牙甚長, 露睛呀口, 靑甲彩繡, 緣以靑錦絲, 執簫而舞. 此亦高麗樂」, 『東槎日記』 乾.

44) 任守幹, 「凡爲高麗樂者, 或有高麗人子孫云」, 『東槎日記』 乾.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듯도 하다. 그러나 18세기에 일본의 고마가쿠를 연주했던 고려인의 자손이 지금 시점에도 여전히 살아 있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 행한 현지조사를 통해 현재에도 그들의 후손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특정 집단의 ‘디아스포라’라는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통신사를 위해 연행된 악무 가운데 많은 수가 현재 일본의 가가쿠로 여전히 연주되고 있다. 이러한 음악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내용의 연구가 추후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전하는 가가쿠와 조선 후기 일본의 가가쿠를 동일한 시선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듯 보이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후 보충할 것이다.

5.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남긴 춤

조선통신사의 행렬은 행렬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구경거리가 되었다. 청도기를 앞세우고 정사와 부사에 이어 300명에서 500명에 달하는 행렬은 일본인의 큰 관심을 끌었다. 통신사가 왕래하는 연도 부근의 사람들은 조선 사신들의 행렬을 그림으로 그렸고, 그 행렬을 모방한 또 하나의 행렬인 마쓰리 계통의 축제도 만들어졌다.

현재 일본에 전하고 있는 당인(唐人)행렬과 당자(唐子)춤은 조선통신사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한때에는 당인 혹은 당자라는 이름이 ‘당’(唐)자를 쓰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것이라는 설이 있었지만, 일본에서 사용되는 ‘당’은 ‘외국’의 개념으로도 쓰인다. 또한 ‘당인’을 ‘조선인’이라는 의미로도 쓰고 있으며, 춤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조선통신사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임에 분명하다.

당인춤 행렬은 1636년에 쓰하치만궁(津八幡宮)의 제례의 일부로 시행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조선통신사의 행렬에서 모방한 것이다. 당인춤

행렬의 연행이 일부 중단되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 복원·전승되고 있는데, 현재 연행되고 있는 당인춤의 행렬은 조인사(町印車)를 선두로 하여 대기(大旗)와 청도기, 나발 2, 춤, 그리고 피리 2, 징 2, 대고, 소고 2, 영기(令旗) 등 스물 세 명이 행렬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가면을 쓰고 행렬에 참가하고 있는데, 매년 10월에 행해지는 축제에서는 가가쿠의 하나인 에텐라쿠(越天樂)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미치바야시’라는 음악에 맞추어 행진하며 이들 간에 걸쳐 약 300호 이상의 집을 방문한 후 춤을 추는 방식으로 연행되며, 지난 1991년에 미에현(三重縣) 무형 민속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다.

여기서 잠시 조선통신사 행렬에 수행하는 악대의 규모와 악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행악대는 조선통신사 파견 200여 년 12차례의 행렬마다 동일한 규모로 유지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행렬에는 태평소와 나발, 나각, 장고, 징, 쟁, 자바라, 대고와 소고 등이 필수 악기로 나타난다. 여기에 더하여 이들 악기보다 전문적인 연주 기량을 필요로 하는 해금과 대금, 피리 등이 수반되는데, 이와 같은 악기들은 군영 소속의 취고수(吹鼓手)와 세악수(細樂手)들이 그 연주를 담당한다.⁴⁵⁾ 간혹 거문고와 가야금, 비파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악기 3종이 수반하기도 한다. 이처럼 조선통신사 수행악대의 현황과 쓰하치만궁의 당인춤 행렬에서 보이는 악기인 나발 2, 피리 2, 징 2, 대고 2, 소고 2 등의 악대를 비교한다면 현재 전해지고 있는 악기는 조선통신사 수행악대의 극히 일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전문적인 연주 기량이 필요한 해금, 대금, 피리, 태평소와 같은 악기들이 긴 기간 그대로 전수되기는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인춤은 엄숙한 신사의 의례적인 요소가 강한 신악(神樂)과는 달리 축제의 기분을 북돋우는 예능이 되었다. 당인이 되어 춤추는 사람은 대개 젊은 사람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 오락 풍요를 빌면서 춤을 추는 것으로 보아 농경사회에 특유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인춤 계열은 메이지시대 초

45) 조선통신사의 수행악대에 관하여는 이경원, 「조선통신사 수행악대의 음악활동 고찰」,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94 참조. 조선 후기 취고수와 세악수에 관하여는 우에무라 유키오, 「조선 후기 세악수의 형성과 전개」, 한국음악사학회 편, 『한국음악사학보』 제11집, 1993 참조.

〈그림 4〉 우시마도 소재 조선통신사 기념관 소장 가라코춤 인형(필자 촬영, 2008)



기까지 히로시마현을 위시한 각지에 있었다고 하는데 통신사가 여러 차례 왕래한 도카이도(東海道)의 미에현, 기후현(岐阜縣), 아이치현(愛知縣) 등에서 특히 성행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⁴⁶⁾ 조선통신사 행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오카야마현(岡山縣)의 우시마도(牛窓)에는 통신사 행렬 가운데 소동(小童) 2인이 대무(對舞)하는 것을 보고 만든 춤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당자용(唐子踊), 즉 당자춤이 전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가라코춤’이라 부르고 있다. 현재 그곳에는 조선통신사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어 관련 자료를 만날 수 있다.⁴⁷⁾

우시마도는 통신사 행렬이 숙박하는 장소이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행렬이 오랜 시간 머무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지역민과 상대적으

46) 구사노 다에코(草野妙子), “일본음악에 대한 한국문화의 영향, 그 알려지지 않은 가면”, 『동양음악』 4, 1982.

47) 필자는 지난 2008년 8월에 우시마도를 답사하여 그 현장을 확인한 바 있다.

로 많이 접촉할 수 있어서 일정한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시마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극적인 문화교류가 행해졌던 곳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 지역에 조선통신사 기념관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과 관련이 있는 듯 보인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소동들의 활동이 큰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 통신사에서 소동의 역할은 여행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부여되어 있다. 나이 어린 소년이 간간이 추는 귀여운 모습의 춤은 수 개월간의 여정에 지친 사행길에서 청량제 역할을 담당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당자춤은 소년 2인의 대무로 연행되는데, 특별한 기교가 필요한 춤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주로 두 팔과 다리를 활짝 펴거나 몸을 돌리거나 하는 방식의 동작을 특징으로 한다. 춤을 추는 소년의 의상이나 춤의 끝 부분은 반드시 세 박자로 마무리하는 점 등이 조선통신사의 소동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당시 통신사를 수행하던 악대의 모습은 오늘날 ‘쓰네이시 하리코 인형’(沼隈常石張り子人形)이라는 일본 인형에 남아 전해지고 있다. 인형의 제작자가 쓰네이시에 살았던 사람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쓰네이시 하리코 인형은 목형(木型)에 종이를 발라 말린 후, 목형은 빼내고 그 위에 조개껍데기를 갈아 만든 흰빛의 안료를 칠한 위에 다시 채색하여 만든 자그마한 인형이다. 수염이 있는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옷의 빛깔은 붉은색과 푸른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손에는 누런 빛깔의 관악기 하나씩을 들고 있는데, 악기가 길어서 오른발의 끝 부분에게까지 내려와 있다. 15cm 정도 되는 자그마한 크기의 이 ‘나팔 부는 남자’ 인형은 메이지시대 이후 현재까지 3대째 가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제작자는 이 인형이 무엇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인형의 손에 들려져 있는 악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계속 만들어 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조선통신사 연구의 초기 인물인 신기수(辛基秀) 선생에 의해 이 인형이 조선통신사를 수행한 악사를 모델로 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악기 모양으로 본다면 관악기인 ‘나팔’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다. 나팔이라 하면 한 음만 소리낼

수 있고 신호용으로 많이 쓰이는 군대용 악기로서 행진 음악인 취타(吹打)를 연주할 때 많이 쓰였다.

300~500여 명에 달하는 통신사 행렬은 일본 땅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곳 분위기를 압도했음을 알 수 있다. 거대한 인원이 전혀 보지 못했던 낯선 옷을 입고 악대가 연주하는 힘찬 행진음악에 맞추어 긴 행렬을 이루고 행진하는 이국적인 모습은 그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인형으로 다시 재현되었다. 그리고 그 인형은 지금도 여전히 제작되어 사람들 곁에 남아 있다. 이를 통해 문화전파 양상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문화의 긴 생명력이 감지된다.

6. 맺음말

조선 후기 약 200여 년의 기간 동안 열두 차례 일본을 다녀온 조선통신사의 활동은 조선과 일본 양국 간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호 영향을 주었다. 그 영향이란 단선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세밀하고 내면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영역을 통해 드러났다.

일본에서 통신사행을 위해 벌이는 각종 의례 및 연향에서 접하는 일본문화는 통신사 구성원 개개인에게 깊은 문화 체험의 기회가 되었다. 조선통신사는 한 반도에서 일본으로 흘러들어 간 먼 과거의 음악과 춤을 에도의 관백 정전에서 접하였고, 그러한 악무를 연행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백제의 후예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통신사가 지나는 곳마다 일본인들의 시선에 포착된 행렬의 외면적 모습은 당인행렬과 당자춤과 같은 문화 자원을 만들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당인춤의 경우 일본 신사에서 시행되는 제례에서 연행하는 춤으로 이식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현재 연행되고 있는 당인춤의 복식이나 동작, 당인춤이 연행되는 제례의 절차 등에서는 조선통신사 행렬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낯선 문화가 낯선 땅에 유입되어 새로운 문화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당인춤과 같은 예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당인춤은 그 지역의 무형 민속문화재로 지정을

받기에 이르렀으니 이를 통해 조·일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던 양상과 그 결과물의 하나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벌인 활동을 통해 17세기부터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조선과 일본의 문화교류 양상의 여러 면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 일본문화가 ‘국가’라는 중심 기반을 잃어 무능하게 된 문화로 보고, 이를 극복하고자 팝아트와 결합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최근작에서는 무능한 문화의 극복을 넘어서 예술의 전능을 회복해 국가를 중심에 세우려는 ‘위험한’ 욕망이 발견되기도 한다. 현세의 이미지를 통해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나라 요시토모의 ‘조용한’ 팝아트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012년 환갑을 맞는 ‘아톰의 죽음’과 함께 전후 패전국의 열등의식과 무능력함에서 벗어나게 해준 수많은 ‘희망의 추진체들’의 연쇄적 죽음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원자력 신화의 죽음’에 직면해 ‘잃어버린 20년’ 이후 일본 대중문화가 가야 할 희망의 공백을 무라카미 식의 ‘전능한 예술의 욕망’이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일본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치와 욕망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작용이 만들어 낸 거품경제의 물신적 상징이자 화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화가 죽어 버린 현 시점에서 일본의 희망을 추진할 새로운 문화적 상징은 무엇인가?

주제어: 무라카미 다카시, 오타쿠 문화, 팝아트, 미술시장, 잃어버린 20년, 신자유주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거품경제, 아톰, 우주전함 아마토, 도라에몽

‘일본교’와 ‘스피리추얼리티’ : 현대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종교의 저울에 달아 본다 | 박규태

투고일자: 2011년 6월 6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6월 19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7월 21일

본고는 야마모토 시치헤이(필명 ‘이자야 벤다산’)의 천재적 발명품이라 할 만한 일본교(日本教)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 특히 1995년 옴사건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신종교(新新宗教)와 신영성운동(新靈性運動) 및 서브컬처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스피리추얼리티 담론을 중심으로 현대 일본사회의 종교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현대 일본인의 ‘정신’세계의 일단면을 엿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구체적으로 인간과 신 개념을 중심으로 일본교의 정의 및 특징을 개괄하면서 내셔널리즘을 매개로 하여 일본교와 일본인론을 결부시켜 고찰하는 한편, 마음, 치유, 자기 찾기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 일본사회의 스피리추얼리티 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이때 본고는 ‘종교’ 개념, 내셔널리즘, 아이덴티티, 소비재의 측면에서 일본교 담론과 스피리추얼리티 담론이 보여 주는 공통점에 주목하면서, 저울의 ‘평형’과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른바 ‘일본정신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오늘날 일본교의 저울의 평형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혁명으로서의 스피리추얼리티 혁명이 얼마만큼 가능한 것인지를 묻고 있다.

주제어: 야마모토 시치헤이, 일본교, 일본인론, 스피리추얼리티, 신신종교, 신영성운동

조선통신사를 통해 본 조·일 문화교류의 면면 | 송지원

투고일자: 2011년 6월 28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7월 5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7월 21일

본 연구는 일본의 요청에 의해 조선왕실이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인 ‘조선통신사’(朝

鮮通信使)의 활동을 통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외교관계의 면면을 ‘문화교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조선통신사는 1811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300~500여 명의 사행(使行)원인이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 소요되는 긴 여정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긴 여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 분야에서 조·일 간의 교류를 알려 주는 역사적 현장 그 자체가 되었고, 이들 통신사행이 남긴 수많은 사행록(使行錄)은 조선시대 외교관계의 생생한 현장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해 주고 있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조선통신사의 활동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살펴본다면 그 교류 영역이 학문 전반에 걸쳐 있고 내용 또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활동 중에서도 조선이 일본에 전한 제사의례(致祭) 양상과 조선의 왕이 하사한 악기의 면면에 대한 것, 조선통신사를 위한 일본 가가쿠(雅樂)의 연주양상 및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남긴 춤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의 오례(五禮) 가운데 하나인 길례(吉禮), 즉 제사의례와 일본의 궁중음악인 가가쿠, 춤 등에 대한 지식은 물론 일본의 국민(國賓)에 대한 의례(儀禮)와 조선통신사 활동의 면면에 대해서도 아울러 섭렵해야 그 입체적 고찰이 가능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조선통신사의 문화교류 면면을 밝히고자 할 때 학제적인 통섭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선통신사’라는 존재는 거대한 집단이동(움직임)을 통해 단기간에, 정해진 코스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문화전파와 교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특수성을 지닌 집단이므로 기존의 시각에서 더 나아가 문화 비교학적 시야를 갖추고 연구해야 할 대상임에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한류’(韓流)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지에 전파되고 있는 우리 문화와 비견되는, 조선시대의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펼친 문화활동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제어: 조선통신사, 문화교류, 제사의례, 궁중음악, 가가쿠, 한류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식민지 조선의 자기 표상: 1930년대 중반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방송을 중심으로 | 서재길

투고일자: 2011년 6월 27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7월 1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7월 21일

본 연구에서는 1930년대 중반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 속에서 식민지의 자기 표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살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방송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문화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뉴스와 강연 프로그램에서 주로 나타나는바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던 조선의 지정학적·군사적 중요성에 대한 강조 속에서 심상지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의 자기 표상의 측면을 들 수 있다. 두번째로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바 제국의 시선을 통한 식민지 문화예술의 오리엔탈리즘적 호출이라는 측면이다.

주제어: JODK, 조선방송협회, 자기 표상, 전국 중계방송, 오리엔탈리즘

Korean Diplomatic Missions(朝鮮通信使) to Japan : Aspects of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_ SONG Ji Won

With emphasis on the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Chosŏn Dynasty and Tokugawa Bakufu, this article looks at the activities of the diplomatic missions dispatched by the Chosŏn Dynasty to Tokugawa Bakufu(Chosŏn t'ongsinsa朝鮮通信使, hereafter t'ongsinsa) on Japan's request and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states. Dispatched twelve times until 1811, the Chosŏn diplomatic missions, called t'ongsinsa, usually consisted of 300 to 500 members per mission and completed long itineraries taking five to ten months.

T'ongsinsa's extensive itineraries and their travels vividly provided political, economic, and diplomatic inter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ir activities in Japan also ranged over a variety of scholarly fields as well as general cultural diffusion, including sacrificial rituals introduced from Korea, music instruments gifted by the Korean kings, ceremonial music played by court musicians in Japan for Chosŏn envoys, and the dances introduced by Koreans, to name a few. Studying such cultural fields requires interdisciplinary knowledge in some special fields such as the sacrificial rituals of the Chosŏn dynasty, the court music [gagaku雅樂] of Japan, and the protocol of Japan for state guests as well as t'ongsinsa's activities per se.

Traveling to Japan along the fixed routes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e t'ongsinsa, a relatively large group of peopl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the two states. The topic of t'ongsinsa should thus be approached from a comparative cultural perspective.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examines the t'ongsinsa's cultural activities in Japan, which can be regarded as a sort of earlier version of hallyu(韓流), a term expressing the popularity of the contemporary Korean culture in almost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se days..

Keywords : Chosŏn t'ongsinsa朝鮮通信使, cultural interchange, sacrificial rituals, court music, gagaku雅樂, hallyu韓流

The Electric Wave Networks of the 'Japanese Empire' and the Self-representation of Colonial Korea : Focusing on the 'Nation'wide Relays by the Korean Broadcast Association in the mid-1930s _ SEO Jae Kil

In this study, I examine the self-representation of colonial Korea through the historical analysis of the 'Nationwide Connections', a radio network of the 'Japanese Empire' that was broadcasted by the Korean Broadcast Association during the colonial occupation. The self-representation of colonial Korea has two broad meanings in terms of its culture and politics. First is characterized by the emphasis on the increasing geopolitical impor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supply base for the expansion to 'the Continent,' which was mainly represented by the news and educational programs. Second is the recalling of Korean traditional arts, which was broadcasted mostly through the entertainment program as a part of Orientalistic approach by the 'Empire'.

Keywords : JODK, Korea Broadcast Association, self-representation, Nationwide Relays, orientalism